경제사회노동위원회
Economic, Social & Labor Council

발행인 김문수 **편집인** 김덕호

발행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82 S타워 7-8층
02-721-7100 www.eslc.go.kr

발간일 2024. 2. 14.

eslc.kr eslc.go.kr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Brief

The Social Dialogue

2024년 - 2호 | 통권 49호 |

윤석열 정부 노사정 대화 본격 시동

경사노위, 본위원회 성공적 개최
윤 대통령, 경사노위 위원들 초청해 격려 오찬

▲ 경사노위 위원 대통령실 오찬 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을 마친 뒤 기념 촬영한 참석자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앞줄 왼쪽),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넷째),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앞줄 오른쪽 넷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앞줄 오른쪽 셋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뒷줄 맨 왼쪽),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뒷줄 오른쪽 둘째),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뒷줄 맨 오른쪽) [사진 대통령실 제공]

노사정,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 채택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가 2월 6일 09:30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본위원회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23.11.13.)한 이후 개최한 첫 노사정 대화로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의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의

▲ 본위원회 기념 촬영 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하는 본위원회 위원 (앞줄 왼쪽부터)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정식 고용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 최미영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뒷줄 오른쪽부터)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지순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박현호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 한다스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노동조합 위원장, 이철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결했다.

본위원회 앞서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선언문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는 급격한 환경변화와 구조적 위기 상황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의 진정한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적극적인 대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만남과 대화와 상생의 기적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문수 위원장이 노사정 대표자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 인사말씀하는 김 위원장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새롭게 시작되는 사회적 대화를 격려하기 위해 경사노위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정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단순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하며,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sic

웹(Web)분야 프리랜서 작가 “프리랜서 보호위한 회의체 구성해 달라”

경사노위, 웹(Web) 분야 프리랜서 간담회 개최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과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1월18일 「웹(Web)분야 프리랜서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웹분야 프리랜서 종사자들이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대책마련을 위한 회의체 구성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프리랜서 권익센터 박현준 정책위원은 “웹툰·웹소설이 K-콘텐츠 산업을 이끄는 핵심 분야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공정 계약’, ‘프리랜서에 대한 권리침해’ 등 심각한 문제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은 이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웹분야 산업

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경사노위 내 업종별 회의체를 구성해 국가적 해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묵묵히 일하지만 소외받는 노동 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웹분야 프리랜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회의체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작년 11월 2일 전체 ‘프리랜서 노동자 간담회’ 이후 웹분야 프리랜서 종사자들의 요청으로 분야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esic

경사노위, 배달 라이더 경청 콘서트 개최

배달라이더 '불공정 계약', '안전 교육', '정부 지원' 등 애로사항 호소

▲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은 1월 23일 오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회의실에서 '배달 라이더 경청(傾聽) 콘서트'를 개최하고, 배달 라이더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경청하고 해법을 논의했다.

배달 라이더들은 우선 플랫폼 회사와 라이더 사이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배달 라이더 A씨는 "배달 라이더들이 회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배달수수료 책정만큼은 회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배달 라이더 B씨는 "회사와 지자체가 안전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는데다, 내용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다"며, "표준화된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도 나왔다. 배달 라이더 C씨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배달도 국민산업이 됐지만, 배달 라이더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문수 위원장은 "열악한 일터에서 묵묵히 일해 온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노동시장 문제 해결의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며, "배달 라이더들이 공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발언하고 있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박현호 정책위원

한편, 이날 경청콘서트는 김문수 위원장을 비롯해 배달 플랫폼 라이더,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송명진 국장과 박현호 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경청 콘서트는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만나, '더 깊이' 듣겠다는 취지로 기획되어 지금까지 12차례 이어져 오고 있다. esc